

단어 암기 지침서

저: Good day Commander

검수: 서우(書友)T

주요 이력

- 9등급을 1등급으로, 91로(路) 영어 연구소/집필팀 소속
- 고1모 9등급 극노베 출신 강사
- 영포자 지도전문 (4~9등급 영포자 1:1 과외경력만 300명 이상)
- 상위권 지도전문 (명문자사고/외고/과고재학&졸업생/의대반 등 다수 지도, 메디컬/SKY합격례有)
- 비대면 단기수업 전문 ((4개월) 고1모 7 → 고2모 1 급의 드라마틱한 케이스 50례 이상↑)
- 현행 중등 교과서 37권 전(全)권 연구 및 분석 경험 & 데이터 소유
- 현행 50권 이상의 시중 중/고등 단어/숙어장 연구 및 분석 경험 & 데이터 소유
- 2010~2020 기출의 모든 문법/구문 연구 및 분석 경험 & 데이터 소유
- 천일문 시리즈 약 1000회 이상 회독&지도 경험 (천일문 지도 전문 강사)
- 유선상담 및 조언 최소 천 명 이상 (추정 3천 명 이상)
- 영어 학습 관련 질문답변 최소 만 건 이상 (추정 3만 건 이상)

목차

1. 수능을 응시하려면 얼마나 많은 단어를 외워야 할까? - 2p

(부제: 학년(수준)별로 얼마나 많은 단어를 외워야 할까?)

2. 어떤 단어장을 외워야 할까? - 3p

3-1. 단어는 어떻게 외워야 할까? (노베이스(4~9등급) 편) - 6p

3-2. 단어는 어떻게 외워야 할까? (유베이스(1~3등급) 편) - 7p

(부제: 단어장 암기 vs. 텍스트를 통한 암기)

4. 복습에 대한 이야기 - 9p

5. 사전으로 단어 암기, 좋을까 나쁠까? - 10p

6-1. 단어 암기 관련 Q&A정리 (노베이스 편) - 11p

6-2. 단어 암기 관련 Q&A정리 (유베이스(1~3등급) 편) - 17p

1. 수능을 응시하려면 얼마나 많은 단어를 외워야 할까?

(부제: 학년(수준)별로 얼마나 많은 단어를 외워야 할까?)

막상 많은 단어를 외워야 한다는 현실에 봉착하면, 이러한 현실을 회피하기 위해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어, 제 친구는 단어를 잘 몰라도 대충 뭉개면서 문제 잘 풀던데...”, “스킬을 쓰면 단어를 좀 몰라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요?”처럼 말입니다.

맞습니다. 꼭 수능에 나오는 모든 단어를 알아야만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도, 그래야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경험담은 결코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지능이, 환경이, 성향이, 시작지점(베이스) 등이 모두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실한 어휘력을 지능으로, 문제풀이 경험치나 스킬 등으로 채울 수도 있고, 실제로 그것을 해내는 학습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이러한 방법으로 안정적으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또 모두가 이러한 효율 중심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원하는 것도 아닐 겁니다.

그렇기에 제가 여기서 전달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 단어들을 다 외워야만 N등급이 나옵니다.” 같은 내용이 아니라, 정석적인 관점에서 각 등급마다, 각 수준마다 이 정도의 단어가 요구된다는 ‘객관적인 지표’를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수능을 보려면, 다시 말해 수능에서 단어로 발목을 잡히지 않으려면 다음의 분량이 요구됩니다.

초등 약 800~1,500개, 중등기본 약 2,000개, 중등심화 약 1,500개, 고등기본 약 2,000개, 수능 약 2,000개, 수능심화 약 1,500개, EBS&기출 약 1,000~1,500개.

이처럼 수능은 도합 10,800개 ~ 12,000개의 단어를 알아야 하는 시험입니다. (숙어 제외)

생각보다 숫자가 크게 느껴져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양은 결코 많지도, 비현실적이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 car, money, bus, taxi, love...처럼 기초라고 생각되는 단어(초등~중등)만 모아도 4천개를 훌쩍 넘습니다. (제가 직접 세어 보고 하는 이야기니 믿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초 수준의 4천개를 제외하면 수능 단어는 도합 6,800개~8,000개 정도를 외워야 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위의 개수가 나오는 것은 충분히 현실적인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지간한 노베이스가 아니라면, 단어암기를 딱히 열심히/부지런히 해보지 않은 4-5등급 수준의 학생들도 본인도 자각하지 못하는 새에 기본 단어 몇 천개는 외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이런 케이스에 해당하는 분들은 (변수를 제외한 정석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1등급을 받기 위해 필요한 단어 암기 분량이 도합 (약) 6,800개~8,000개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 내용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수능을 보려면 몇 개의 단어를 알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뿐일까요?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생각해 보면 각 학년마다 몇 개의 단어가 요구되는지도 함께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수준의 영어 수업을 이해하려면 800~1,500개를,
중1~2 수준의 영어 수업을 이해하려면 위 수준에 약 2,000개의 단어를 더 외우고,
중3 수준의 영어 수업을 이해하려면 위 수준들에 약 1,500개의 단어를 더 외우고,
고1~2 수준의 영어 수업을 이해하려면 위 수준들에 약 2,000개의 단어를 더 외우고,
고2~3 수준의 영어 수업을 이해하려면 위 수준들에 약 2,000개의 단어를 더 외우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수능에서도 단어로 발목을 잡히고 싶지 않다면 위 수준들에 더해 수능 심화 단어 약 1,500개와 EBS&기출단어 약 1,000~1,500개를 외우면 된다는 것이지요.
(참고: 위 볼륨에서 EBS&기출 단어가 빠져도 1등급 턱걸이는 노력만 만하고, 여기에 더해 수능 심화 단어까지 빠져도 2등급까지는 노력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본인의 목적(뿐만 아니라 지능, 언어적 감각 등...)에 따라 외워야 하는 단어의 볼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로써 초/중/고 및 수능 수준에 요구되는 단어의 볼륨을 알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2. 어떤 단어장을 외워야 할까?

시중에는 수많은 단어장이 존재합니다. 워xxx터, 능xx카처럼 유명한 메이저급 단어장들부터 가끔씩 드문드문 이름이 들려오는 단어장들도, 생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 단어장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단어장 중 어떤 단어장을 외워야 할까요?

저는, 가능하면 메이저급 단어장을 외우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또 될 수 있다면 ‘출판사를 통일해서(=같은 출판사에서 나온 단어장 시리즈를 통째로)’ 외우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이때 많은 학습자들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어, 선생님, 제가 보는 단어장이 유명한 단어장은 아니어도 수능용/고등용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냥 이거 외워도 되지 않나요?”하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걸 외우셔도 됩니다. 하지만 메이저급을 제외한 시중 대부분의 단어장들은 한 가지 큰